

● 재미있게 말해야 호감을 산다

매일 텔레비전에 얼굴이 나오는 꽤나 유명한 정치인이 어느날 지역구 유치원을 방문했다.

원생들은 손뼉을 치며 환영했다. 어린 새싹들의 밝은 모습을 본 그는 흡족해하며 아이들을 향해 물었다.

"여러분,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?"

"네 국회의원이에요."

그러자 그는 유치원생마저 자신을 알아보는 것이 대단한 인기라 여기며 재차 물었다.

"그럼, 내 이름이 뭔지 알아요?"

그러자 아이들은 하나같이 큰 소리로 외쳐댔다.

"저 자식이요!"